

청소년 인권교재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 집 2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변화된건 아이들만이 아니다. 정보와 사회의 물결 속에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청소년 인권 문제가 있다.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기보다 현재의 주인으로 설수 있어야 한다.'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8일 아버지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11월 3일 ?



서울 홍사단

서울 홍사단

청소년 인권교재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 집2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변화된건 아이들
만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의 물결 속에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청소년 인권 문제
가 있다. 더 이상 미래의 주인공이기보다
현재의 주인으로 설수 있어야 한다.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8일 어버이 날
5월 15일 삼짇날
11월 3일 ?



서울 봉사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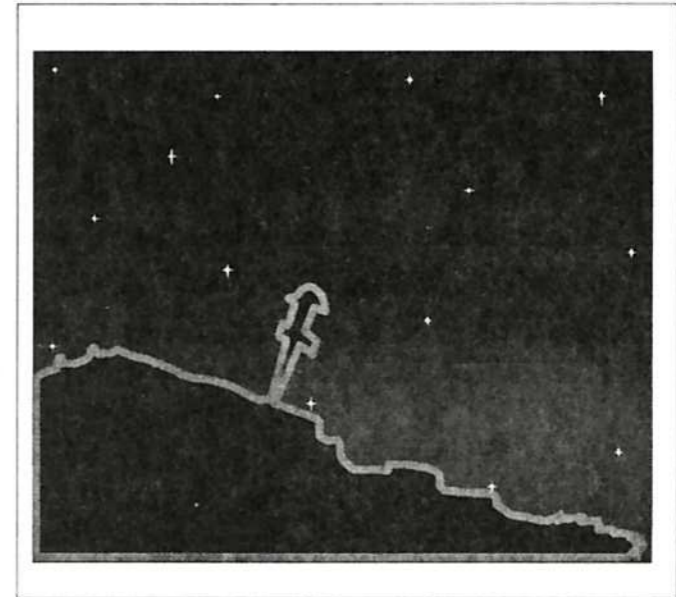
제1부	7
제1장 청소년 인권 교육 자료	7
I. 인권의 정의와 역사	9
1. 인권의 정의	9
2. 인권의 역사	10
II. 인권의 내용	13
1. 제 1 세대 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	13
2. 제 2 세대 인권 -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3
3. 제 3 세대 인권 -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	14
4. 불가분의 권리 - 인권	14
III. 청소년 인권의 내용 그리고 그 침해	16
1. 청소년 인권의 내용	16
2.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내용과 인권침해	17
3. 청소년의 관심영역별 인권내용과 침해	18
4. 인권침해를 지속시키는 원인	21
IV.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24
1. 학교 현장에서의 의식변화	24
2. 법·제도적 문제	24
3. 인권교육의 실현	25
4. 인권 상담 기회의 확대	25
5.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26
V. 인권 게임	30
1. 자기 긍정 진단	32
2. 소중한 사람	32
3. 원의 안과 밖	33
4. 내가 선택한 인물	34
5. 권력의 꽃	35
6. 싸움은 싫다	35
7. 공정한가?(1)	37
8. 공정한가?(2)	38

VI. 자료 제시	41
제2장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	47
1. 프로그램이란 ?	49
2.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	49
3.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본요소	49
4. 청소년들의 주요 특성과 욕구	50
5.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개발 단계	51
6.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분야	51
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52
8. 단일 활동 프로그램의 작성	52
9. 프로그램 작성시 유의 사항	53
10. 단위 프로그램 계획 후 점검할 자문자답	53
11.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려사항	54
12. 프로그램의 작성·평가	54
제3장 공민훈련 프로그램 I	57
1. 시작의 시간	59
2. 별칭짓기	60
3. 나는 누구인가	62
4. 신뢰의 산책	64
5. 원 안에 들어가기	66
6.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67
7. 역할극	69
8. 2000년대의 삶	71
9. 내가 나에게	73
10. 소감문 쓰기	74
제4장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77
I. 친해지기	79
1. 나의 소개	79
2. 소개합니다	80
3. 만나보고 싶은 사람	80
4. 서명 받기	81

5. 얼굴 그리기	82
6. 나의 감자	83
II. 나의 발견	84
1. 지구촌 최후의 생존자	84
2. 5분 인터뷰	85
3. 내가 걸어온 길	86
4. 자기의 인식	87
5. 지금의 나는	88
6. 거울 응시법	88
7. 인생 곡선	89
8. 경매놀이	90
9. 나의 선택	91
III. 그 밖에	92
1. 우주조난 S.O.S	92
2. 성격테스트	93
3. 두 개의 나	95
4. 완전한 한 쌍	96
5. 3분간의 시험	97
6. 긴장 이완법	97
7.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	98
IV. 자 료 제 시	103
제5장 야영 활동 프로그램	135
I. 야영활동의 개괄	137
1. 야영 활동의 목적	137
2. 야영의 기본활동	137
3. 야영 활동의 기획	138
II. 야영 활동의 프로그램 계획	140
1. 기본 계획의 수립	140
2. 일정 계획의 수립	141
3. 프로그램 계획	142

Ⅲ. 야영의 준비	144
1. 조직 편성과 역할분담	144
2. 준비 작업	145
3. 행사 진행 전 최종점검 및 일정표 작성	148
Ⅳ. 야영장비와 야영을 위한 기술	152
1. 장 비	152
2. 야영에 필요한 기술	153
제6장 공민훈련 프로그램 Ⅱ	157
1. 국선도	159
2. 소리지르기	160
3. 동료 소개 해주기	161
4. 남이 본 나는	162
5. 집단연설	164
6. 신문내용 바로 전달하기	165
7. 파도 헤쳐나가기	166
8. 생산 공장 놀이	167
9. 모의선거	168
10. 이야기 이어가기	169
11. 모의 청문회	170
12. 신문으로 전단·대자보 만들기	172
13. 진짜 내 모습 그리기	173
14. 서열놀이	174
15. 더불어 사는 세상	175
16. 종합 몸다리기	176
17. 대형그림 공동창작 (걸개그림)	178
18. 증권시장 놀이	179
제7장 인권자료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1. 토론해 봅시다	183
2. 갈등 중재와 협상력 훈련	192
3. 학생의 날 이야기	205
4.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210
5. 2001 청소년 포럼 자료집	215

제 1 장 청소년 인권 교육 자료



인권의 정의와 역사
인권의 내용
청소년 인권의 내용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I. 인권의 정의와 역사

1. 인권의 정의

(1) 인권의 개념

- 인권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삶이란 이러한 인권이 구체적인 삶을 규율하는 원칙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성차별, 인종주의, 외국인 배척, 종교적 극단주의, 독재정치체제가 적극적인 반(反)인권적 요소들이라면, 마땅히 우려야 할 인권의 구체적인 목록과 국제적·국내적 인권보호 제도에 대한 무지나 은폐는 소극적으로 인권을 부인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본래 성품 속에 새겨져 있는 인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2) 인권의 성격

① 인권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권리이다.

-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루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과는 구분하여 인권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권리다. 인간이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인간답다’고 할 수 없는 선을 인권이라 한다.

② 인권은 보편적이다.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③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 우리에게서 정부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 그 잣대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의 보장은 권력이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는 언제든지 저항 할 수 있다.

④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이 보장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인권에 대한 인류의 약속

-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각 나라의 헌법과 1948년 유엔에서 세계 각국이 합의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나라사이에 맺은 법인 ‘국제인권조약’ 등은 하나같이 인권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2. 인권의 역사

(1) 인권개념의 탄생

① 인권 -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성장

인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인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아닌 소수의 특권만이 보장되었다.

인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인간다움을 보장받기 위해 특권에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고, 또한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갖가지 시련들이 담겨 있다.

② 특권의 세상

과거에는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억압하는 신분제도 속에서 대다수 인간의 삶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소수 특권층의 즐거움과 편한 생활을 위해 희생해야 했고, 권력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국왕의 요구나 간섭이 심해지면 귀족들은 그들의 힘으로 국왕을 압박하여 자신들이 보장받고 싶은 권리를 '문서'로 만들어 '약속'을 받아내곤 하였으나 이것은 단지 국왕과 귀족들의 것이지, 그 외의 일반 사람들의 것은 아니었다.

(2) 인권의 탄생 - 근대시민혁명

① 근대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인권이념

- - 인권은 목적이요 권력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 -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

② 근대시민혁명은 모든 국민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의 소유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특권과 신분체제를 역사의 장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법 앞에 평등하게 하였다.

③ 근대시민혁명은 특히 재산권과 생명권 자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하였다.

④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발전되고,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 - 사회권의 등장

시민계급은 경제활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옹호하면서 기타의 자유(사상, 표현, 신체의 자유)는 여러 법률로 제한하였으며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만 선거권을 주었고 여성을 권리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남성과 차별하였고 형편없는 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생활하기 힘들자 어머니와 어린아이들도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되어 평균수명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팔짱을 낀 체,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만 최대한 보장하기만 하면 사회가 저절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배세력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지배계급과 자본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지배 세력은 노동자에게도 일정 한도의 인간다움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4)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화

-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여만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국내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 1945년 유엔은 국제평화유지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을 목적을 내걸고 그 첫 작업으로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유엔은 선언, 협약, 조약을 만들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은 한나라 내부에서만 연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항이다.

예를 들어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은 국경을 초월한 전 인류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인권들이다

● 읽을 거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은 1991년에 각각 유엔의 회원국이 되어 유엔의 각종 행사와 기구에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유엔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인권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4년 6월에 출범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만들어졌다. 세계 무대에 나가 국내에서 몰랐던 다양한 인권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럿이 힘을 합쳐서 인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인권협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과 공동활동, 인권사건의 자료화, 인권교육, 국제연대를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인권협에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도 민중을 해방시킨 위대한 녀'. 마하트마 간디(186- 1948)

"비폭력은 다양한 상황에 처할 때 의식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폭력은 악을 행하는 자의 뜻에 단순히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영혼 전체에 함정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가 비폭력을 실천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은 인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비폭력은 두려움이 없는 불굴의 용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비폭력이 겁쟁이의 방패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비폭력은 용감한 자의 무기인 것이다."

"시민의 불복종은 시민이 갖는 권리이다. 인간이 이상 그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시민의 불복종 권리가 무정부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불복종을 억누르는 것은 양심을 구금하려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간디의 주장은 인도의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주었다. 그가 전 생애를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삶의 목적은 인도의 자유였고, 그의 전략은 평화였으며, 그의 무기는 사랑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 평생에 걸쳐 모두 열 한 번 투옥되었고, 총 2,338일을 감옥에서 보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태어난 간디는 영국 유학 후 변호사가 되었으나 인도 내의 뿌리깊은 신분차별과, 식민지 조국이 당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역사의 현장으로 걸어온 간디는 인도의 신분차별제도에 대한 참회와 비판, 영국인이 강요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저항에 나섰다. 1930년, 24일간 200마일에 걸쳐 감행한 수금행진을 한 예로 들면, 이 행진은 영국 총독부가 수금을 전매하고 인도인이 소금 만드는 일을 금지한 제염금지법에 저항한 시민불복종운동이었다. 간디는 행진 중에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소금을 손수 만드는 일을 착수하였다.

간디는 "인도에서 물러가라"는 구호 아래 영국 지배의 종식을 요구하였지만, 매 투쟁 투쟁마다 영국 제국주의와 영국인을 구별해야 하며, 영국 제국주의가 아닌 영국인에 해한 증오는 하나의 예속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의 염원이던 독립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인도 내의 뿌리깊은 힌두교와 회교 사이의 종파간 충돌이 격심하였다. 인종, 종교, 카스트를 넘어서는 결합을 강조하던 간디는 죽음을 무릅쓴 단식까지 하며 종파간의 화해를 설득하였으나, 1948년 1월 30일 한 힌두 극우파 일원에게 피살당하였다.

II. 인권의 내용

1. 제 1 세대 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

- 봉건시대를 뒤로하고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자유권'은 정치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 막이었다.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자유권에 대한 권리는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권리들로 발전해 왔다.

- - 차별로부터의 자유 (2조)
- -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 (3조)
- - 노예나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 (4조)
- -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5조)
- - 자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9조)
- -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10조)
- -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 (12조)
- -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 (17조)
-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8조)
- - 의견·표현의 자유 (19조)
- -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20조)
-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 (21조)

2. 제 2 세대 인권 -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근대시민혁명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선언하며 인권의 찬란한 신기원을 열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고치려 들지는 않았다. 그 결과 노동자에게 선거는 먼 나라 얘기였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분명했으며, 저임금·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아동노동의 현실은 끔찍한 것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배세력의 수용을 통해 인권에 새로 등장하게 된 권리들을 '사회권'이라 한다.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역할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다음의 권리들로 발전해왔다.

-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2조)
- -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 등 (23조)

- -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 (24조)
- -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5조)
- - 교육을 받을 권리 (26조)
- -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 (27조)

3. 제 3 세대 인권 -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

- 제3세계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은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경험을 갖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빈곤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빼앗긴 세월을 되찾고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하여 제3세대 민중은 권력과 자원, 부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많은 인권 문제들은 한 나라나 개별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재난으로부터 구제 받을 권리' 등은 국경을 초월한 단결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

이런 배경에서 제3세대 인권을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라고 부른다.

- -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 지구와 우주자원·과학·기술·기타 정보의 발전 결과, 문화적인 전통·유적·기념물 등의 인류공동의 유산에 공통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4. 불가분의 권리 - 인권

- 사회권 없는 자유권은 형식적인 자유가 되기 쉬우며, 자유권 없는 사회권은 장기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없는 노숙자가 투표용지를 받는 일은 드물 것이며 선거에 관심을 갖기도 어려운 일이다. 일정 정도의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견이 억압받는다면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 제도는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전체' 적인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읽을 거리

흑백 공존사회를 열망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1955년, 미국 몽고메리에서는 한 흑인 여성이 버스 안에서 백인용 좌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당시의 흑인분리법에 따르면 공공버스 안에서 흑인과 백인은 같은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그 부당한 법에 대하여 불복종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이 용감한 흑인 여성은 로자 파크스였다. 그녀의 용기에 자극받은 몽고메리의 흑인들은 가혹한 흑인분리법이 철폐될 때까지 버스 타기를 거부하였고, 인종차별 폐지와 흑인이 시민권 획득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 몽고메리 투쟁을 이끈 지도자가 마틴 루터 킹 목사였다.

신학대학을 마치고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의 교회 목사로 부임한 킹은 몽고메리 투쟁을 381일 간이나 지속시켰고, 마침내 앨라배마 주의 흑인분리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1963년, 인종차별이 가장 심각했던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서도 흑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6,7세의 어린이들에게까지 물대포를 쏘고 경찰견을 쫓 경찰의 잔인성이 알려지면서 주 당국은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언론의 압력에 밀린 앨라배마 주 당국은 결국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게 되었다.

버밍햄 투쟁이 승리한 한 달 후인 1963년 6월, 흑인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민권법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1964년 킹 목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흑인 인권운동의 계속된 승리에 불구하고 도시 빈민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인권을 보장해도 빈곤의 늪을 벗어날 수 없었던 흑인들이 절망과 분노가 분출된 것이었다.

킹 목사는 인종폭동을 통해 피부색만이 아니라 경제적 계급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개혁운동에서 벗어나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빈민운동에 뛰어들었다. 미국 내 지배세력은 킹 목사의 노선에 위협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1968년 4월 4일 한 암살자의 총탄이 킹 목사의 가슴을 꿰뚫었다. '흑백 공존사회' 건설이란 킹 목사의 꿈은 여전히 현실이 되지 못한 채 열망으로 남아 있다.

아파트헤이트에 맞선 자유정신, 넬슨 만델라(1918 -)

"저는 백인 지배에 대해 싸웠습니다. 저는 흑인 지배에 대해서도 싸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간직해 왔습니다. 저는 이 이상을 위해 살고 이것을 이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이상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1990년, 27년 6개월 간 투옥된 후 석방연설에서)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백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아파트헤이트(인종분리, 차별정책)와 인종주의에 대하여 평생을 투쟁해 온 인물이다. 그의 조국인 남아공은 전체 인구의 15%인 백인이 나머지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기 위하여 흑인과 백인의 완전한 분리와 차별에 기초한 정책으로 통치해 온 나라였다.

아파트헤이트의 현실은 이랬다.

"교통사고로 백인 여성과 흑인 소녀가 중상을 입고 길에 쓰러졌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그 차는 '백인전용'이어서 흑인 소녀는 탈 수 없었다. 흑인 소녀의 목숨은 위태로웠지만 흑인 전용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만델라는 남아공의 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부족장의 지위를 물려받는 대신 아프리카 흑인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운동에 나섰다. 만델라는 흑인차별을 공식화한 각종 법률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처벌을 달게 받자는 '악법무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 1962년 체포된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힌 몸이 되었으나, 감옥에서도 수감된 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그 감옥은 '만델라 대학교'라 불릴 정도가 되었다.

만델라가 수감된 이후에도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운동은 계속되었으며, 국제여론도 만델라의 석방을 촉구하고 남아공의 백인정권을 질책하였다. 마침내 백인 정권은 국내외의 압박에 무릎꿇을 수 밖에 없었다. 1990년 백인 정권은 만델라를 조건없이 석방하였고, 만델라는 1994년 실시된 남아공 최초의 '자유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Ⅲ. 청소년 인권의 내용 그리고 그 침해

1. 청소년 인권의 내용

- 한국사회 청소년의 일반적인 삶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의 인권은 크게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인권과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인권, 그리고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생활영역	권 리 의 내 용
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 -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 방임, 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 -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표현할 자유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착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무상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의 정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조약의 원칙과 조약이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를 알 권리
사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고문과 사형, 기타 비인간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 - 형사절차에 놓인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사회복지를 지원받을 권리

2.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인권내용과 인권침해

(1) 학교 속에서의 청소년 인권 침해

① 사생활의 침해

- 청소년은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수업을 마치고 보충수업에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돌아오거나 혹은 학원에 과외 수업까지 받는다. 결국 이 시대의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활동과 인간관계 형성 등 사생활 보장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제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소지품 검사는 말없이 당하는 사람에게 명확한 사생활 침해다.

②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 청소년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는 두발과 복장의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남자에게 스포츠형 머리를, 여자에게 단발형 머리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장식 교복과 운동화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③ 비인격적 체벌의 문제

-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의한 체벌이 현실적으로 통제의 유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상식의 선을 벗어난 폭력적 형태의 무차별적인 체벌은 학생에게 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④ 교사의 편견

- 문제아들에 대해 교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성적중심의 학생평가와 촌지문화는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는 단순히 성적 비교에서 나아가 인격에 대한 비교로 발전되기 쉽고 여기서 피해를 받는 청소년은 교사의 편견을 받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위의 차별을 받는 학생이 반대의 차별을 받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따돌림을 받는 '왕따'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있어 공정한 학생관리와 배려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초가 된다.

(2)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권 침해

① 과보호로 인한 침해

- 부모세대의 저학력과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자녀수의 감소 등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대리 만족으로의 욕구 충족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청소년기는 미성년으로서 가정의 보호가 있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과도한 보호는 청소년의 꿈과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가정 폭력의 문제

- "내 자식 때리는 건 내 맘이지 무슨 상관이나"라든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해나 자살은 지식에 대한 무분별한 소유의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보통은 이러한 학대의 내용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되는 경우는 드물다. 법 제도적으로 가정내의 폭력도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싸움을 포함한 이러한 자녀 학대를 가정문제로 치부해 버려 사법 당국이 관여를 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③ 성적 학대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행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내담자는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다. 그 동안 이 시설을 이용한 16명의 피해자 중 14명이 근친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대부분 어머니가 가출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딸을 보호하지 못하고 남편의 성적 대상이 되도록 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아버지가 보호자이며 친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가해자인 아버지가 친권 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적 보호조치가 없었다.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친권의 오용 또는 남용의 문제로 인해 해결책이 없는 청소년이 가출을 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시설을 이용하려는 아이들조차 부모의 인계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구조로 운영되었다.

(3) 가출 청소년의 문제

-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청소년 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현재까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주된 복지사업은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 배회하다 경찰에 단속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청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4) 근로청소년의 인권침해

- '미성년자 고용법'에 의해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고용이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은 주로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무허가 사어장이나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상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시간제로 일하는 청소년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의 경우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공공연하게 유흥업소에 고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강도 높은 노동과 저임금 등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청소년의 관심영역별 인권내용과 침해

(1)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

① 건강권

- 상당수 중·고등학생은 책걸상 높이가 맞지 않아서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공업규격용 고교생 책상의 평균높이는 72.5cm, 의자는 43.2cm 정도인데, 일선고교에서 사용중인 책상은 65-69cm, 의자는 44-46cm로 규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걸상의 높이 균형도 무시되고 있다.

(2) 학습과 문화에 관한 권리

① 체벌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인 만남,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의 체벌은 효과적일 수 없고 오히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② 학습권

- 사회 각 분야에서 최첨단을 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딱딱하기 그지없는 나무 책상에 나무의자, 거의 개방되지 않는 특별 활동실, 먼지투성이의 교실, 지저분한 화장실, 책 창고에 불과한 도서관 등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의 선택권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C·A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화, 교과목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결국 교사에게는 교권이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존재해야 한다.

③ 여가활동

- 정규수업 이외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장시간 학교에 머무르면서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제약받고, 여가활동을 하려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① 표현의 자유

-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옷차림을 등교길 교문에서 검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손발톱까지 검사한다.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는 학교나 학년에서는 더욱 심하다.

② 종교의 자유

-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는 교육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크게 제약되고 있다. 사립학교 중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운영하는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많은 경우 초·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고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학생의 주거지에 따라서 특정한 학교에 학생들이 배치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배치되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종교교육을 받을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③ 결사의 자유

- 교육법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불법시하고 대부분의 학교당국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최소한만 허용한다. 심지어 학생회의 대표를 뽑는데 피선거권의 자격으로 우수한 성적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학생회의 간부는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인 학생들이 차지하고 이들은 대부분 집안 환경도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경우가 많아 학생회는 이런 상위층 자녀들의 친목 단체처럼 전락되었다.

학생회활동을 규제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동아리활동도 규제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을 배정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의 이름으로 교과공부만을 강요함으로써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하는 집단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혹은 학교간의 자치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는다.

④ 사생활권

- 청소년들의 사생활은 학교와 사회에서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 교실에서 소지품검사는 관행화되어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인 학생의 신분으로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검사하기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영장 없이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과 같이 명백히 사생활과 소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단지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학생의 신상정보가 교직원에 의해서 유출됨으로서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청소년의 사생활권을 설명할 수는 없다.

(4)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① 부모의 신체적 학대

-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는 가정폭력의 일종이지만, 자녀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간주되고 별다른 대책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향이 있다.

② 성적학대

- 친인척에 의한 성적 학대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는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주는 피해가 매우 크고, 보호하거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구제하기도 쉽지 않다.

- 교직원에 의한 학생의 성적 학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한 학생의 성적 학대는 주로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 담임 교사나 교과담당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를 남용하여 방과후에 남게 하거나, 과학실·음악실·체육실·숙직실 등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을 유인해서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하게 된다. 이 경우 학생은 교사라는 지위의 특성상 이를 알릴 수 없으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4. 인권침해를 지속시키는 원인

(1) 입시문화의 지배

입시문화가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전체 학교의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열한 입시경쟁의 현실 속에서 성적은 단순히 학생들이 교사가 전수해 주는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성적'은 곧 능력을 의미한다는 잣대로 학생들을 차별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차별화된 위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성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능력과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학생들이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서 인정받고, 대입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

입시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학교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나 친구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형성하기가 힘들고, 경쟁적인 동료관계를 강요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불안과 불신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시문화의 지배에 숨막혀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교육내용의 사용가치보다는 졸업장이라는 교환가치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학력사회라는 점, 교육적 논리와 철학보다는 전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논리에 학교 또한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낙오자라는 낙인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입시문화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만을 강요하는 주입식교육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효율적으로 관리된 온순한 국민을 생산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 순종적인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의도, 가족단위의 입시출세주의가 보편화된 가운데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생성, 유지되어 왔다.

(2) 통제위주 권위주의 문화의 지배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행동성향도 주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입시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교사에 의해 점수화되고 있으며, 입시문화의 지배하에서는 교사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생은 학교의 규율과 위계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질서에 순종할 것을 강요받는다.

학교공간은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교단은 학생들이 '판짓'을 하고 있는지 교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층마다 학년별 교무실을 따로 설치하여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도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내 구성원들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는 권위주의적 문화를 양산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요

소이다. 교장은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위계 질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경직되고 비합리적인 학교규율에 대한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자율보다는 타율에 길들여지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공동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규율을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구축해 나가기보다는 강요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기가 쉽다. 학교가 요구하는 규범을 획일적으로 내면화한 획일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며, 통제 받는 것에 익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 읽을 거리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온몸이 불꽃에 휩싸인 청년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하고 회치며 쓰러졌다. 그의 품안에선 (근로기준법)이란 책이 불타고 있었다. 이 불꽃의 이름은 전·태·일. 계속되는 가난 속에서 “그들과 그들로 옮겨 다니면서” 자랐고, 죽는 날까지 무허가 판자촌에 살아야 했던 청년. 열여섯 살부터 평화시장 봉제공자의 노동자가 되어 허리도 펴 수 없는 다락방에서 하루 14시간씩 노동해야 했던 청년. 열다섯 살 정도의 어린 여공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마음 아파했던 이 청년은 왜 불꽃이 되었을까?

전태일이 노동하던 당시 어린 여공들은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다락방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쏟아지는 줄음을 이기려고 뽀족한 바늘 끝으로 제 살을 찌어 대며 손발이 마비되도록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해도 하루 생계를 이어가기가 벅찬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어린 미싱사가 일을 하다가 피를 토했다. 전태일이 돈을 구해 병원에 데려가 보니 폐병 3기였다. 그러나, 그 여공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해고만 당했다.

전태일은 그 충격으로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해 아무 일도 못했던 자신이 바보였다고 생각하며 동료들과 ‘바보회’를 조직하였다. ‘바보회’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였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1주일에 98시간 근무, 한달에 휴일은 이틀 뿐, 형식적인 건강진단, 아무런 치료도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의 의무조항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태일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근로조건 개선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시하였고,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노동청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경멸에 찬 웃음만을 되돌려주었다. 계속되는 집회 방해와 당국의 수수방관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전태일과 동료들은 청계천 노동자들 앞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불덩이로 나타난 것은 ‘전태일 자신’이었다.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외치며 한 청년이 불길에 휩싸인 채 거리로 뛰쳐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소망으로 이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어머니 품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어머니... 배가 고파요”였다.

중,고등학생 복지회(학복회)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한 통신모임이다.

1995년 당시 강원도의 최우주라는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자기 의견을 밝힌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의 의견이 발표된 후 통신상에서 그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6년 하이텔에 학복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후 나우누리에서도 학복회가 결성되었다. 학복회는 학교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공개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학생을 위한 학교 만들기’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학생인권선언’을 기초하는 등의 일을 해 왔다. 학복회를 만나려면 하이텔(go sws), 나우누리 (go sgswsl) 에 접속하면 된다.

IV.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1. 학교 현장에서의 의식변화

사회적으로 공공기관보다도 진보가 더 느린 분야는 교육이다. 이미 교육 시행령을 통해 모든 학교의 학생회 직선제 도입과 일제시대의 잔재인 각 반의 반장제를 폐지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 회장제 도입, 체벌의 제한 등 관 주도의 교육문화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학교와 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학생회 직선제의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형식적인 학생회운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

반장제의 회장제 전환은 성적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학생을 통제하는 느낌을 지우고 각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를 아는 학생이나 교사가 흔치 않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체벌의 제한 문제는 현장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오히려 체벌을 제한하기 위해 벌 점제를 도입했지만, 체벌은 체벌대로, 벌점은 벌점대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부담 지워진다.

1인당 교사의 수가 40-50명에 이르러 새로운 교육 문화의 틀을 만들어 내기에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교육예산의 확충과 교사의 자질 향상 등 새로운 교육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2. 법·제도적 문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민법 제909조 제1항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어야 한다. 근친 성폭력에서 보는 것 같이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까지 친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법 제75조의 경우도 학교장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하여도 그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학생이 징계를 받을 지라도 당사자에게 그 소명의 기회, 재심과 이의 신청 등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의탁 청소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장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그들이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현실적인 수준의 생활보조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수학교가 아니더라도 각 학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도입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보다 포괄적으로 '유엔아동권리조약'에 정부가 서명한 이상 그 근거에 맞게 통합적인 청소년에 관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법이다.

최근 가정 폭력 방지법은 이런 의미에서 크게 진보화된 법안으로 그 효용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가정 내에서 만이라도 청소년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친권자인 부모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고발권도 규정하여 피해를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3. 인권교육의 실현

현 교육체계에서도 인권교육의 내용이 있다. 윤리와 사회과목에서 실행되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바른 생활과 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내용보다는 헌법을 중심으로 한 위우기식 교육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문제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교실에 앉아 책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학생회와 학급회의를 통한 학교운영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자치활동을 통한 공동체 문화의 학습,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상담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통합적인 인권교재가 필요하며 이를 교육 할 수 있는 교사양성의 문제는 시급하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배우고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오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배우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야! 입다물지 못해!”라고 한다면 인권 교육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 생활과 교실 속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인권의 내용을 정해 보고, 침해받기 쉬운 인권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교칙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나 '세계 인권 선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한의 교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4. 인권 상담 기회의 확대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학생이 상담할 수 있는 '호루라기 전화'가 있고, 학교 주변에서 폭력을 당한 청소년이 '청소년폭력에 방재단'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곳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인권의 피해자를 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적 기구에서 청소년 인권 상담은 가장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받은 청소년이 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권 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권 상담은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예방 사업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조정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시·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시립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가정법원, 지방법원 등과 연계해서 인권의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 불합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고 학교나 학급의 운영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을 계발하는 자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권리행사의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학교의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도 기를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장을 거치지 않고 해당 관청이나 법정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학생회가 학급회의나 대의원회의, 건의함 등을 통해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자치활동의 강화와 학교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1) 학급활동

학급활동은 학급의 임원을 선출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학급공동의 일에 대한 계획과 실행, 학급과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자율적인 역할 분담, 학급내의 친목도모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학급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학생들 스스로 학급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한 학급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문화와 공동체적 의식을 기를 수도 있고, 생일잔치나 반체육대회 등 학급친구와 담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자체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학급내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반장을 임명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도록 반장 직선제의 원칙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반장이 단순히 담임의 심부름꾼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대표로서 권한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학급회의가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각 학급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건의사항은 학생회가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2) 학생회활동

전교학생회는 학생들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민주적이고 자발적

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교학생회는 보통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 각 반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대의원회,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의 학생회가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의 복지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기보다는 학교와 학생의 중간자로서 학교행사를 주관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로는 학생회장 후보의 자격제한, 비민주적 학생회칙, 학생회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활동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 출마할 수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후보자들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자격 성적제한규정을 폐지하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의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하는데, 학생회비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학교운영참여권이 대표적인 권한이다.

(3) 클럽활동

클럽활동은 CA시간에만 활동하는 자치활동으로 토요일을 전부 클럽활동으로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주일에 단 한 시간 주어지는 클럽활동 시간을 모두 자율학습이나 방송수업으로 대체하여 소중한 학생자치활동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교사 자신의 지도역량이 모자라고, 격무로 인하여 클럽활동에 대해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측에서 물적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율적 학생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먼저, 영어회화반, 수학반, 고전연구반 등 실질적으로 수업의 연장인 클럽활동을 없애고 설문지나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전한 클럽활동 반을 신설한다. 교사 자신의 전문적 기능을 요하는 클럽 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부서가 많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힘을 모아 클럽활동 시간이 다른 것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매주 임기응변적으로 지도하지 말고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특별히 적극적인 학생들을 묶어 소모임을 만들어도 좋고 이후에 동아리로 발전시키면 더욱 좋다.

(4) 씨클활동

씨클활동은 학교에서 공인된 씨클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학교에서 배정한 CA시간 이외에도 활동을 계속하는 자치활동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동아리라는 용어가 씨클의 대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동아리는 씨클에 비해 학생들이 관심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학생 주도하에 운영되는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요구에 맞게 동아리를 많이 만드는 것, 동아리활동을 개방하는 것, 자율적 운영권과 학교측의 정당한 지원비를 확보하는 것 등이 요구되는데, 이때 교사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현재의 교육풍토에서 동아리활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동아리는 우선 학생회의 활동을 도와주는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거꾸로 학생회는 동아리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싸우는 상호 지원 세력이

된다. 그리하여 동아리는 학교민주화의 주요 세력이 되고,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민주화를 위한 동아리의 역할은 동아리연합회가 꾸려질 경우 더욱 커진다.

(5) 교외활동

교외활동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각 학교의 특성을 같이 공감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또한 학교라는 좁은 틀을 벗어남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교외활동은 학교활동을 학교 밖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6) 소모임활동

모순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은 집단에서 나온다. 모순된 학교현상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 개개인과의 만남도 소중히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을 묶어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은 교육문제의 해결 주체로, 자기 삶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소모임은 단위 학교의 민주화를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 소모임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무조건적 복종의식, 비인간적 경쟁의식에서 깨어나 비민주적 학교현실을 깨쳐 나갈 실천적 힘을 얻는다. 소모임은 학생자치활동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인권 인식 강화 위한 활동예시

1. 학생회를 통한 권리의 주장

● 진행절차

- 학생회의 구성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활동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를 학생들에게 미리 과제로 부여한다. 모둠별로 각기 다른 과제를 부여한다. 과제의 종류는 첫째, 피선거권자가 입후보되는 절차를 검토하게 한다. 둘째, 학생회 선거현장을 사진으로 찍게 하거나 상황을 묘사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입후보자의 공약을 가져와서 검토하게 한다.
- 모둠별로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여 학생회의 실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여기서 단지 현재의 학생회 기구에 대한 비판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 모둠별로 분석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게 해본다.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서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2. 학급회의 시간 등을 활용하는 인권교육 -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 목표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 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실천방법을 찾는다. 생활 속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에 대하여 성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의 존엄을 높인다.

● 진행과정

- 학생들이 교사나 동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지'와 '그 이유'를 열 가지 이상씩 종이에 각자 적어보도록 한다(7분).
- 모둠별로 각자 적은 것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순서대로 다섯 가지만 정리한다(8분).
- 정리가 끝나는 대로 모둠별로 발표한다(10분).
- 모둠별로 한두 사람씩 이 프로그램을 해본 느낌을 듣는다(5분).
- 마지막으로 실천에 대한 제안을 듣고 마무리한다(10분).

● 사후처리

- 모둠별로 발표된 내용을 모두 전지에 깨끗이 쓰거나 타자를 쳐서 교실 게시판에 붙이고 볼 수 있도록 한다.
- '친구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대요!', '친구에게 상처주는 이런 말이나 행동은 삼갑시다!' 등으로 제목을 정하고 10-20가지로 항목화하여, 교실 생활수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

V. 인권 게임

❶ 퀴즈로 풀어보는 인권문제

❶ 퀴즈 1

철수는 이번 학급 학생회 선거에서 부반장으로 뽑혔다. 한 주가 지난 뒤 아침 조례에서 학급회 임원에게 시상하는데 철수반의 부반장으로 다른 학생의 이름이 지명되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철수에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이 학급성적 50%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반장, 부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선생님도 섭섭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총무를 부반장으로 올렸다고 했다. 이 경우 철수의 학생회 피선거권은 무시되는 것이 타당한가?

○ - 질문

1. 학급 또는 어떤 단체의 장에게 기대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2. 학업성적을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❷ 퀴즈 2

수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들이 모여서 축구팀을 만들었다. 연습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운동장에 사용허가신청을 했는데, 운동장 관리인은 여자들이 무슨 축구냐면서 무시하였고, 축구장 사용할 시간을 배당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시간에 그것도 다른 팀들에 비해 작은 시간을 할당해 주었다. 이것은 이 여학생들의 인권을 위반한 것인가?

○ - 질문

1. 여자가 축구를 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한 것인가요?
2. 운동장 관리인은 어떤 종류의 차별을 한 것입니까?
3. 공공시설의 사용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❸ 퀴즈 3

영희는 19세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자를 돌봐주는 사회복지관에 취직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1차 서류심사는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면접에서 문제가 생겼다. 면접관은 영희의 가운데 손가락 세 개가 보통의 사람들보다 좀 짧은 것을 보고는 아이를 안고 돌봐야 하는 일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희를 불합격시켰다. 이때 영희의 권리는 침해되었나?

○ - 질문

1. 면접관이 영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믿는 데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2. 어떤 근거로 면접관은 영희가 그 일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나요?
3. 면접관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❹ 퀴즈 4

회진이는 유리그릇 만드는 공장에 취직한 뒤 1년째 다니고 있다. 늦게 알게된 일이지만 입사후 여자들은 포장하는 일, 남자들은 모두 소매와 도매의 고객에게 상품을 파는 일을 담당했다. 포장일은 승진이 보장되지 않고, 판매 쪽의 일만이 승진이 보장된다고 한다. 그래서 회진이는 자신도 판매 쪽으로 옮기고 싶어 알아보니까 그 동안 포장에서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업무를 옮기려면 시험을 쳐야 하는데 그 시험도 실제 판매업에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회진이는 자신의 회사에 단지 2명의 여자만이 승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회진이도 흥미를 가지고 상급자에게 의논을 했는데, 그는 회진이의 부서를 옮기겠다는 요구를 거절했다. 거기다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회진이에게 말했다. 회진이는 차별을 받은 것인가?

○ - 질문

1. 회진이는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이 회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회사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❺ 퀴즈 5

정수와 민호는 AIDS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로 하고 반 친구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친구들은 정수와 민호가 동성애를 한다고 수군거렸고, 책상에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공공연히 그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반 학생들은 정수와 민호의 인권을 침해했는가?

○ - 질문

1. 정수와 민호의 기금 모금에서 문제된 것은 무엇입니까?
2. AIDS 환자를 돕는 것과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비난받은 것과 관련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3. 위에서 반 친구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1. 자기 긍정 진단

(1) 개 관

- 현재의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고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 경험을 마친 후 '자기 긍정'의 정도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준비 사항

- 자아존중 검사지(자료 참조), 필기도구

(3) 진 행

- ① 준비된 검사지를 인원수에 맞게 준비하여 나누어주고 지시문을 읽어준다.
- ②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인별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③ 검사가 끝나면 '평가표'에 의거하여 스스로 채점을 하도록 하고 각자의 점수에 대하여 느낀 소감을 발표한다.

⊕ 평가표 ⊕

① 채점은 답안과 일치하는 문항수로 하여 답안과 일치하는 문항수가 늘었으면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성장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만약 일치하는 문항수가 줄었으면 집단 경험 중에 어떤 문제, 이를테면 부적응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나 않았나를 확인해본다.

② 답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	○			○				
아니오	○	○	○			○	○		○	○	○	○
번호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예	○	○				○	○			○		
아니오			○	○	○			○	○		○	

③ 지도자는 검사 결과를 '평가'에 의거하여 잘 분석하고 개개인에 대한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소중한 사람

(1) 개 관

- 평소에 생각해 본일이 없는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명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약 15-20명
- ② 시간 : 약 30분
- ③ 대형 : 원형
- ④ 준비물 : '소중한 사람' 질문지(자료 참조), 필기도구

(3) 진 행

- ① "나는 왜 소중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
- ② 원형으로 둥글게 앉아 짧은 문장으로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말해본다. 두 세 번 반복하여 발표해본다.
- ③ 이번에는 자기 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왜 소중한지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적어본다.
- ④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 ⑤ 느낀점을 발표해 본다.

(4) 유의 사항

- 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발표할 때 장난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② 발표는 되도록 미리 적어둔 단어들을 이용해서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하도록 한다.

3. 원의 안과 밖

(1) 개 관

- 인권의 필요성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상징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15-20명
- ② 시간 : 약 40분
- ③ 준비물 : 칠판이나 큰 종이, 필기도구

(3) 진 행

- ① 칠판이나 큰 종이 위에 큰 원을 그린다.

- ② 우리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③ 모두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칠판에 그려 넣는다. 예를 들어 인간다움을 위해 평화를 상징하는 하트 또는 비둘기를 그려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④ 각자가 그려 넣은 것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이 상징하는 것과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본다.
- ⑤ 원의 안을 다 채웠으면 원의 바깥쪽에 원안의 것을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같은 방법으로 그려 넣는다.
- ⑥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림에 대해 설명해보자.

(4) 유의 사항

- 원안과 밖을 관찰하여 더 그려 넣고 싶은 것을 추가하거나, 그려진 내용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가 있다면 토론을 통해 고친다.

4. 내가 선택한 인물

(1) 개 관

- 인권의 역사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인권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활동이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제한 없음
- ② 시간 : 약 30분
- ③ 준비물 : 필기도구, '내가 선택한 인물' 기록지(자료 참조)

(3) 진 행

- ① '정의롭다'는 말에 어울릴만한 인물을 생각해본다.
- ② 내가 선택한 인물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한다.
- ③ 각자가 선택한 인물을 소개해본다.
- ④ 소개된 인물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본다.

(4) 유의 사항

- 처음에는 개인별로 인물을 정하여 생각하고 소개해보고, 조를 나누어 조별로 소개하고픈 인물을 정하여 단막극이나 그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그 인물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에는 충분한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도록 한다.

5. 권력의 꽃

(1) 개 관

- 전통적인 차별의 유형을 인식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상황을 분석해보는 활동이다. 차별의 내용과 그 차별이 차별 받는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제한 없음
- ② 시간 : 약 40분
- ③ 준비물 : 권력의 꽃이 그려진 종이(자료 참조), 필기도구

(3) 진 행

- ① 권력의 꽃이 그려진 종이를 나누어 갖는다.
- ② 권력의 꽃의 잎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심부에는 잎을 두 개로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존재한다.(첫번째 그림)
- ③ 첫 번째 그림의 꽃잎에 중심에 써진 차별의 기준으로 권력을 누리는 대상을 꽃잎의 안쪽에, 그 차별을 받는 대상을 바깥쪽 부분에 써 넣는다.
- ④ 두 번째 꽃에는 각자가 스스로 차별의 기준을 정하고 권력자와 차별 대상을 적도록 한다.
- ⑤ 그림의 내용과 그런 기준을 정한 이유 등을 설명해 보도록 한다.

(4) 유의 사항

- 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각자의 차별의 인식이 다름을 깨닫게 한다.
- ② 토론이 과열될 수 있으므로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인다.

6. 싸움은 싫다

(1) 개 관

- 전쟁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계와 계산을 통해 전쟁과 군비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직접 느껴보고 평화가 인류의 복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제한 없음
- ② 시간 : 약 30분
- ③ 준비물 : '전쟁과 돈' 설문지(자료 참조), 필기도구

(3) 진행

①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어준다.

인류가 무기에 소비하는 돈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 즉 여성과 남성 모두와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이 매년 180달러를 쓰는 것에 해당한다.

무기 산업은 지구상에서 석유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산업이다. 일례로 1992년의 인류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인구의 약 49%가 벌어들인 소득과 맞먹는 액수였다.

오늘날 개발 도상국에는 '의사'의 숫자보다 8배나 많은 '군인'들이 있다.

전쟁에서 더 안전한 사람은 민간인이 아니라 전투하는 군인이다. 1945년 이래로 2천 2백여만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1989년과 1992년 사이에 82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중 3건만이 국제 분쟁이었고 나머지는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내전이였다.

군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환경 오염원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5대 화학회사가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독 물질을 군대가 배출한다.

오늘날 핵무기를 탑재한 단 한 대의 핵잠수함의 위력은 2차대전때 사용된 모든 화력의 8배에 해당하며, 히로시마를 100만번 파괴할 위력을 갖고 있다.

- Colm Regan(1995), the Business of Blood

"제작된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 발사된 모든 로켓은 결과적으로 굶주리고 먹지 못한 사람들, 추위에 떨며 헐벗은 사람들에게서 도둑질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로 뒤덮힌 세상은 돈을 써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땀과 과학자들의 천재성과 어린이의 희망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에 있어서도 이것은 삶이 아닙니다.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인류는 철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 아이젠하워(미국 34대 대통령)

나는 세계 3차대전의 무기가 뭐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계 제 4차대전에서는 막대기와 돌로 싸우게 될겁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과학자)

② 글을 듣고 난 후 설문에 응답해본다.

7. 공정한가? (1)

(1) 개 관

- 사법정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제한 없음
- ② 준비물 : '공정한가...? I' 설문지(자료 참조)필기도구

(3) 진행

① 지도자는 다음의 글을 차례로 읽어준다.

성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성호의 반에는 창조라는 친구가 있는데 며칠 전 그 친구가 퇴학을 당했다. 창조는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는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결석이 잦았다. 창조가 싸움을 자주 하며 술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창조는 학생부실에도 자주 불러 다녔다. 그래서인지 창조는 선생님들에게 반감이 많은 아이이다. 성호도 학교 생활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의 행동에는 호감이 가지 않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창조가 패싸움을 벌여 경찰에 잡혔다가 학교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들렸다. 학교로 돌아온 창조는 바로 학생부실에 끌려가 맞았고, 사건 경위서와 반성문을 썼다고 한다. 며칠 후 창조 문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교장 선생님과 학생부 선생님, 주임 선생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창조에게 퇴학 처분이 결정되었다. 창조나 창조의 부모님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나중에 결과를 통보 받았을 뿐이다.

성호는 창조 같은 문제아에게 있을 수 있는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며칠 후 깜짝 놀랐다. 창조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성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인데다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처벌받아야 한다.
제12조 7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자백한 것은 유죄를 판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제12조 어른이 청소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청소년에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한다. 특히, 청소년은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7조 어떠한 청소년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즉,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제40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청소년을 존중하여야하고 모든 일을 청소년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② 참가자는 글의 내용을 잘 듣고 주어진 설문에 답해본다.
- ③ 각자의 생각을 설문의 응답을 참고하면서 발표 및 자유롭게 토론해본다.

(4) 주의 사항

- 토론이 과열될 수 있으므로 진행자를 두어 그 지시에 따라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한다. 중재가 어려울 때는 잠시 쉬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8. 공정한가? (2)

(1) 개 관

- 아동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인권문제는 아니다. 그 이유는 취학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실제 얼마만큼의 청소년이 어떤 노동에 종사하는지 정확한 파악과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노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제한 없음
- ② 시간 : 약 40분
- ③ 준비물 : 없음

(3) 진 행

- ① 청소년 노동에 관한 글을 나누어주고 읽어보게 한다.(자료부분 참조)
- ②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 - 각 사례속에 등장한 '일(노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임금'을 받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자신의 경험 또는 주위에서 본 일을 얘기해 본다.
 - - 일을 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 - 일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은 무엇인가?
 - -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일을 한다고 할 때 당연히 보장 받아야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 청소년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른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할 것이 있을까?

- ③ 토론한 내용을 다음의 기준과 비교하여본다.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위협하거나, 교육에 방해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특히 ①고용이 가능한 최저연령을 규정해야 하며, ②고용시간 및 고용조건에 관해 알맞은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③이를 어길시에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 ④ 지도자는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 공정한가? (2) ◆

* 다음의 글은 실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것이다.

● 사례 1

나는 얼마전에 무서운 일을 겪었다. 실직하신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우리집의 행복은 깨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드셨고, 심한 날은 어머니를 마구 때리셨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술만 드시고..... 난 배도 고프고 아버지가 무서워 무작정 집을 나왔다. 역 주변에서 얻어먹으며 며칠을 보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와 같이 일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 아주 작은 공장이었는데 아침 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을 해야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 집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날 마구 때렸다. 그리고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난 몰래 도망쳐서 경찰서로 달려갔다.

● 사례 2

부모님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나보곤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하시지만 마음이 무겁다, 학원비다, 보충교재비다, 손 벌릴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다. 올 겨울 방학에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하는데 괜히 겁이 난다. 경험 있는 친구들 중에는 재미있었다는 애도 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는 애도 있다. 하지만 욕설이나 잔소리 듣는 거,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게 너무 짜증났다는 애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밤거리에서 '빼끼'를 하거나 아예 유흥업소에 나간다고 한다. 그게 돈을 제일 많이 번단다.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나 열심히 할까?

● 사례 3

나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사는 아이인데, 손으로 카펫을 짜는 공장에서 일한다. 우리집은 아주 가난해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수가 없다. 우리 동네의 내 친구들도 다 나랑 비슷한 처지라 학교에 다니는 아인 거의 없다. 나처럼 카펫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만 백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에서 2억이나 되는 아이들이 나처럼 일을 하고 있다. 난 지금 아홉 살이니 여기서 일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우리가 만든 카펫은 세계 곳곳에 수출된다. 어쩐 내가 짠 카펫이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다. 난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일한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쉴 수가 없다. 쉬고 싶어도 감독 아저씨가 무섭게 지켜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카펫을 짜다보면 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작은 창문으로 먼지가 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난 늘 기침을 해대고 천을 염색하는 약품에선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난 글도 모르고 학교도 못 다니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 카펫 짜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VI. 자료 제시

◆ 자아 존중감 검사지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남·여 성명_____

아래의 문장들은 우리가 항상 자기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면 "예"에 ○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에 ○표하십시오. 여기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그대로를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 사항	예	아니요
1. 지금의 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2.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		
3. 만약 가능하다면 나 자신에 대하여 바꾸고 싶은 것이 많다.		
4. 나는 어떤 일이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있다.		
5.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사람이다.		
6. 나는 집에서 자주 화를 낸다.		
7. 나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8. 나는 내 주위의 동무들에게 인기가 있다.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린다.		
10.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일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신다.		
11.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12. 여러 가지 고민이 뒤얽혀서 자주 나의 일을 방해한다.		
13. 동생(후배)들은 내 말을 잘 듣는다.		
14.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15.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자주 있다.		
16.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17. 친구들에 비해 나는 너무 열등하다.		
18.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곧 그것을 말한다.		
19.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2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		
21. 나는 학교에 갈 의욕을 자주 잃어버린다.		
22. 나는 무슨 일이든지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23. 나는 믿음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 소중한 사람 ◆

질 문	대 답
1. "나는 왜 소중한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간단하게 적어보자.	① ② ③
2.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왜 소중한가? 옆 사람이 소중한 이유를 적어보자.	① ② ③
3. "왜 소중한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① 대답하기가 쉬웠는가? 어려웠는가? ② 대답하기가 쉬웠다면, 또는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평소에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5.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가 선택한 인물 ◆

질 문	대 답
1. 그 인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그 인물이 연관된 구체적인 사건은?	
3. 그 인물을 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4. 소개된 인물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무엇이었는가?	
5. 소개된 인물이 추구한 변화는 어떤 것이었나?	
6. 소개된 인물은 어떤 실천을 했나? 어떤 방법을 택했나?	
7. 소개된 인물의 투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8. 지금도 그러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는가?	

◆ **공정한가...?** ◆

① 앞의 글과 비슷한 상황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해 본다.

② 성호가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

③ 창조의 잘잘못을 떠나 학교가 문제를 다룬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떤 면이 옳고 어떤 면이 잘못된 것인지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본다.

(* 학교의 '징계위원회'를 사회의 법원으로, 퇴학을 형벌로, 수사기관을 학생부실로 가정하고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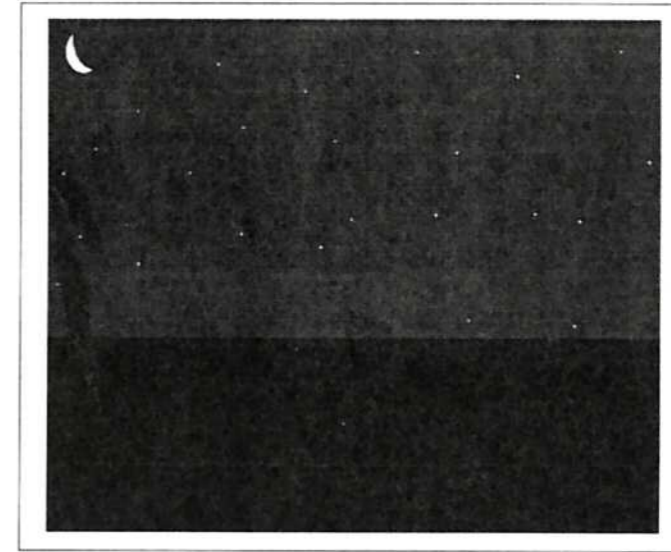
④ 학생부실에서 창조가 받은 처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⑤ 징계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했나? 공정하게 구성되었나?

⑥ 퇴학은 적절한 처벌인가?

제 2 장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



프로그램이란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
 청소년들의 주요 특성과 욕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개발 단계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분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단일 활동 프로그램의 작성
 프로그램 작성시 유의 사항
 단위 프로그램 계획 후 점검할 자문자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려 사항
 프로그램의 작성·평가

1. 프로그램이란 ?

① 어떤 집단이나 운동체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과정으로 흔히 활동으로만 국한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활동 방법, 조직 등 모든 주위 환경을 프로그램이라 정의한다.

즉 프로그램은 어떤 단체나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징

- - 재미있어야 한다. 즉 매력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 - 체험학습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Learning by Doing)
- - 자기 교육적 활동이어야 한다.
- - 대상자의 연령에 맞도록 진보적이어야 한다.
- - 다양한 학습방법이 교류 이루어져야 한다.
- - 시대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 성인지도자와 청소년간에 동반자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 - 다양성과 융통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 - 집단으로서가 아닌 개별적인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
- - 협동정신이 충분히 발휘되는 공동사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3.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본요소

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3대 요소는 목적, 청소년의 요구와 기대, 사회의 요구와 기대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교육철학적 관점의 필요)

① 청소년은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요구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청소년들에 관한 이해는 발달적인 면, 개인적인 면, 그리고 교육적인 면이다.

4. 청소년들의 주요 특성과 욕구

연령	특성	욕구
6세 - 11세	- 놀이 지향적 - 상상과 공상 - 신체발달의 점진적 촉진 - 사회성 발달에 의존 - 정신적 발달의 시작	- 많은 놀이 기회와 활동 - 여러 가지 상상적 역할을 할 기회 - 신체적 능력에 따른 활동 - 사회화와 보호를 위한 또래집단 -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치체계
11세 - 14세	- 놀이 지향적 - 모험심이 나타남 - 빠른 신체적 성적 발달 - 사회적 발달, 더 작은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충동 - 우정에 토대를 둔 정신적 발달, 사랑의 이상화	- 더 많은 활동과 도전 -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 멀리 갈 기회 -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활동 - 관심거리와 환경을 공유하는 또래집단 - 집단가치에 따른 가치체계, 도덕적 원칙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줌
14세 - 17세	- 활동적인 모험 탐구 -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망 - 급격한 신체적 발달 - 사회적 발달, 친한 친구를 찾음 - 강한 집단 연대감 - 정신적 발달 - 확립된 가치에 대한 반항	- 시야를 넓히고 독립심을 느낄 수 있음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 - 자신의 능력에 따른 신체적 활동 - 집단 가치 운영, 타집단과 밀접한 가치를 갖는 기회 - 가치, 사회와의 관계, 가치에의 문제제기, 자신만의 이상향 세움
17세 - 21세	- 사회에서의 공식적 권리획득 - 미래 직업을 위하여 자신을 교육시키는 과정 - 가족과 가정을 이룩하려는 과정의 시작 - 정치적 관점을 수립하는 과정 - 성인생활의 정신적 가치 확립	-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 사회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 직접적인 접촉 - 가족 내에서 확고한 위치에 있는 성인과 또 다른 청소년들과 밀접한 접촉 - 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수행 학습 - 종교와 사회에 속하고자 함.

5.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개발 단계

- - 욕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
- - 목적과 목표를 숙고하고 찾아내는 일
- -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택하고 수합하는 일
- - 프로그램의 실행
- -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평가방법과 수단을 결정하는 일

6.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분야

구분	프로그램 개발 분야	비고
청소년 단체 종교단체	- 활동 연령 단계 구분 - 연령 단계별 활동 목표 및 내용 설정 - 중장기 활동 목표의 수립 - 활동방법(진급제도, 기능취득제도, 의견수렴제도) - 시대변화에 따른 특별 단위 프로그램	5 - 10년 단위로 재점검
청소년 단체의 지방 조직· 청소년 수련원	- 연합 프로그램 개발 - 주제별 워크숍 등 시사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임원훈련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지도자 (개인별)	- 장기 활동 프로그램 - 단위 활동 프로그램 - 연간 활동 계획 - 특별 프로그램 (가족초청, 집회 등) - 주 집회 계획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프로그램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분 야	프로그램 (예)
품성 개발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 종교활동, 명상, 성취동기, 향상 프로그램, 독서 등
지도력 배양	진로, 남녀동등의식, 모의국회, 인간관계 개선, 바른 이성교제 활동, 의사소통 프로그램, 리더십 개발, 토론, 견학 등
창 의 력	연극, 음악, 미술, 서예, 공작, 컴퓨터, 작문, 예술관람,
건 강	성교육, 각종운동, 건강유지법
야외 활동	야영, 산악활동, 수상활동
생활 기능	요리, 예절, 전통예절, 소비생활, 응급처치
국제 이해	민속프로그램, 전통문화 익히기, 세계의 언어, 국제시사, 여행, 직접적 교류활동, 전세계적 공통 관심사 논의 등
봉 사	개인봉사, 시설봉사, 환경보호, 캠페인

8. 단일 활동 프로그램의 작성

- -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수립
- ☞ 청소년들의 흥미, 욕구, 구체성과 현실성,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가의 여부, 우리 단체의 이념과 부합하는가?
- - 프로그램 수혜자를 중심으로 욕구와 흥미를 조사한다.
- - 하부 단위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일정을 결정한다.
- - 프로그램의 성격에 적합한 시기와 장소를 찾는다.
- - 하부 단위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제공자를 모색한다.
- - 예산 기획을 수립한다.
- - 기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
- - 홍보 계획을 수립한다.
- - 참가자들에게 안내할 안내문을 작성한다.
- - 배부 자료를 제작한다.
- -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진행표를 작성하고 진행팀이 모여 업무를 분담한다.
- - 식단, 진행강사, 기념품제작, 배부자료, 시청각 기자재, 시설, 개최장소 등을 최종 점검한다.

9. 프로그램 작성시 유의 사항

- - 목적 목표에 기초를 두는가?
- - 프로그램의 다음 사항이 청소년들이 욕구와 흥미에 부합하는가?
 - ☞ 내 용
 - ☞ 프로그램 계획시 청소년들의 참여
 - ☞ 프로그램 수행시 사용되는 방법
 - ☞ 쓰여지는 자료
- - 프로그램 자체가 청소년 운동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임을 생각하며 진행하는가?
- -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 - 여가선용의 선택권이 다양해진 청소년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매력적이고 도전적인가?
- - 청소년들에게 계속 흥미를 주는 목적의식, 창조력 그리고 혁신성이 들어 있는가?
- -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 - 사회 특정 계층의 모든 청소년들(농촌지역, 도시빈민, 소수민족, 장애인 등)에게도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가?
- - 남녀 합동 프로그램 계획시 남녀의 관심사가 동등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 - 세계적인 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
 - ☞ 국제교육 (평화교육 포함)
 - ☞ 남녀 동등의식
 - ☞ 지역사회개발
 - ☞ 환경
- - 모든 분야별 프로그램이 고루 반영되고 있는가?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원 받고 있는가?

10. 단위 프로그램 계획 후 점검할 자문자답

-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 - 충분한 준비는 ?
- -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었는가?
- - 내 자신이 융통성이 있는가?
- - 청소년들이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

- - 모든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는가?
- - 모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인가?
- -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시간 등이 배정되었는가?
- - 다양성을 감안했는가?
- - 청소년들에게 내용의 확신을 줄 수 있는가?
- - 청소년들의 지도력 개발에 도움을 주는가?
- - 사용할 보조 도구가 올바르고 최신의 것인가?
- - 청소년들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미소로 시작할 수 있는가?
- - 재미있을까?

11.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려사항

- -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루어졌는가?
- - 참가자전원이 참여하고 있는가?
- - 의견교환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 - 즐거운 분위기가 유지되는가?
- - 역할 분담은 원활한가?
- -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활동에 필요한 제반 준비물에 대한 점검은 완전한가?
- - 계획했던 시간을 엄수하고 있는가?

12. 프로그램의 작성·평가

① 청소년 프로그램의 중요성

- - 청소년들은 그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애착을 갖는다.
- - 계획과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참석한다면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관심거리와 욕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 - 프로그램에 실패한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이 지도자만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 -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청소년과 이들을 지도한 성인 지도자들은 서로 기쁨과 성취감을 공유하게 된다.

① 프로그램 준비 과정

- -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확히 규정하고 명료화하여야 한다.
- - 프로그램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들을 발굴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 -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 -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 -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략을 작성한다.
- - 집단 구성원들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다.
- -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① 프로그램의 평가

- - 평가의 목적 : 프로그램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결과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면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즉 청소년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였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 - 평가시기 : 평가는 프로그램 전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 - 총괄평가 : 프로그램 종료 후 성패요인을 종합하여 검토한다.
- - 형성평가 : 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 연속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수시로 프로그램을 개선
- - 평가자 : 평가는 지도자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의 평가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평가단계 : 지도자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하여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수시로 청소년들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법과 프로그램의 전과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문서화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제 3 장
공민훈련 프로그램 I



시작의 시간
별칭 짓기
나는 누구인가
신뢰의 산책
원안에 들어가기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역할극
2000년대의 사람
내가 나에게
소감문 쓰기

1. 시작의 시간

(1) 개 관

- 캠프 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일일 “공민 훈련” 캠프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2) 덕 목

- 자주 정신, 자치 능력에 대한 훈련, 대공 의식

(3) 준비 사항

- ① 집단운영 : 대집단
- ② 소요시간 : 1시간 이상
- ③ 장소 : 실내 또는 실외
- ④ 준비물 : 없음

(4) 유의 사항

- 지도자는 실내 또는 실외에 참가자들을 모두 집합시킨다. 지도자는 주제가 되는 공민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고 이번 캠프가 흥미위주의 캠프가 아님을 알려준다.

(5) 공민 훈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문에 근대적 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식민지 지배 밑에서 한국이 부분적으로 근대적 공업화를 진전시켰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것은 원천적으로 수탈과 동화를 위한 것이며 왜곡된 근대화에 불과하였다. 진정한 근대 시민 사회의 정착과는 거리가 먼 해악과 폐단을 더 많이 초래하였다.

도산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민족 구성원의 사회생활의 정신적 배경을 통찰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가 일제의 동화 정책으로 오랫동안 민주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주체정신, 자립정신, 협동정신, 봉사정신 등 민주적 공민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 민족도 하루속히 봉건적 생활 태도를 탈피하여 근대적 시민 사회의 생활 태도를 가져야 서구 사회와 같이 민주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캠프에서는 공민을 육성하는 훈련 과목을 두어 민주적 시민을 육성, 교육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공민 훈련의 내용은 자주정신, 자치능력, 대공의식의 함양으로 구성된다.

첫째, 민주적 시민이 되려면 자주정신이 강해야 한다. 자주정신이란 주체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체성은 가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중심을 갖고 사고하는 것이다. 둘째로 민주적 시민이 되려면 자치 능력의 훈련이 필요하다. 민주 사회는 인간을 존중하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다. 민주 사회의 시민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 능력이 없는 자는 민주 시민의 자격이 없다. 셋째로 민주적 시민이 되려면 대공 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민주적 공민은 대공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대공의식은 사리사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공평 정직한 태도로 공을 위

하여 힘쓰자는 것이다. 민주 시민은 나와 우리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 넓은 자아의 형성을 토대로 사회적,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식견을 쌓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한편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등한히 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참여해야 한다. 민주 시민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을 모든 분야에서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뚜렷한 식견을 가져야 민주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

2. 별칭짓기

(1) 개 관

- 마음 열기는 전체 프로그램의 열림장, 도입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자기 개방을 통하여 평소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자기세계를 밖으로 표출함과 동시에 상대의 개성에 젖어 보고 거기서 다시 자신을 정리함으로써 참가자 전체에게 공헌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자시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화의 폐쇄성으로, "말 안 하면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겉도는 만남으로 그치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자들을 믿고 자기 노출을 함으로써 상대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고 나 자신으로서의 자아 개념이 더 확대되어 가고 동기유발까지 일어나서 행동실현이 용이하여진다. 가장 짧은 시간에 모두의 관심이 지금 여기의 장으로 집중되는 체험을 갖게 된다.

여기서는 신분, 직위, 나이, 성별 등의 틀을 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2) 덕 목

- 자기개방, 자기이해, 타인이해, 주체성, 자율성

(3) 준비 사항

- ① 집단운영 : 소집단(약12명)
- ②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이상
- ③ 장소 : 실내, 실외
- ④ 준비물 : 명찰, 색연필(크레파스), 옷핀, 10×8(가로×세로)정도 색지로 리본고리를 만들어 사용한다.(색 8절지로 8개를 만든다.)

(4) 진 행

- ① 모두 잘 보이도록 등글게 앉는다. 여기서는 지위나 학벌, 성별, 나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만남을 위해 새로운 모습의 자기로 불리고 싶은 별칭을 선택하게 한다.
- ② "이제부터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별칭을 자신의 관심과 소망이 담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의

이름, 자연의 이름 등 모임에서 불러졌으면 하는 애칭 또는 자신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지어 보십시오."

③ "지금부터 각자 자기가 선택한 별칭에 대하여 연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얘기해도 됩니다." 먼저 이야기하려는 이가 없을 때는 진행자가 자기를 소개하고 참가자 중에서 몸이 앞으로 나온 이를 초대한다. 망설이고만 있는 참가자, 현재 여기에 집중을 잘 안 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특성(긍정적인)에 반응을 보낸다. 관심을 여기 지금의 장소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④ 별칭소개가 모두 끝나면 지금까지 별칭소개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서로 발표한다. 지금 자신의 심정은 어떠하며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으며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5) 유의 사항

- 별칭을 지어 주거나 암시하거나 써주는 등의 친절을 삼간다.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모두 별칭을 쓰도록 주지한다. 질문에 친절히 답하고 참가자의 별칭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삼간다. 별칭을 짓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긴장감이 해소되고 자유로와 참가자 각자의 개성을 발견하게 된다.
- ② 소탈한 인간성에 접하게 되어 서로간에 호감을 갖게 된다.
- ③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눔으로써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 ④ 겉으로만 보고 가졌던 선입견과 매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⑤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말로 표현함으로써 더 확실해진다.
- ⑥ 참가자들의 별칭소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닌)하게된다.

(7) 응 용 1

◎ 별칭 지어주기

구성원을 4명씩 조로 나누어 간단한 소개시간을 갖는다. 자기 심정과 가정소개, 소속 등의 안내를 하고 싶은 대로한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애칭을 지어 준다. 한 사람이 종이 4쪽을 갖는다. 4인이 1, 2, 3, 4. 번호로 정한다. 자기의 번호에는 자기가 달고 싶은 애칭을 쓰고 나머지 번호에는 다른 번호의 사람의 인상을 보고 적당한 이름을 지어 준다. (될 수 있으면 동물, 새, 곤충, 물고기 같은 움직이는 것을 본뜨는 것이 좋다.) 다 쓴 것을 모아 놓고 서로 나누어 갖는다. 별칭을 받을 것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 받은 느낌과 어떤 이유로 선택한 것인지 발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감이 조성된다.

(8) 응용 2

◎ 별칭 글짓기

문장형태는 자유형으로 하고 구성원의 별칭을 다 모아 넣어 글을 만든다. 발표하고 서로 느낌을 나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 닮고 싶어진다. 친근감이 생기고 글쓰는 연습이 된다.

3. 나는 누구인가 ...

(1) 개 관

- 공민 훈련에서 '나는 누구인가'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자기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아마도 끝없이 해야 하는 자기 탐색의 여행길이 될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자기의 행동을 일체화시켜 가는 학습으로서 오늘날 주변의 변화에 급급하여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자신의 주체를 잃고 살아가는 삶을 자기 본연의 삶으로 되돌리는 기본학습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맥락 지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하게 수용할 때 비로소 타인을 나 자신처럼 이해할 것이다. 자신을 혼자서 마음속으로 느끼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개방하여 어떤 반응을 받아야 한다. 그 때에 자기 강화가 일어나고 동기가 유발되어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집단활동 속에서 집중적으로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 자신을 알게 하고 상대를 알게 하고 서로 협동하게 하여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2) 덕 목

- 주체성, 자율성, 자기수용, 자기발견

(3) 준비 사항

- ① 집단운영 : 소집단
- ② 소요시간 : 2시간
- ③ 장소 : 실내
- ④ 준비물 : 16절지, 필기도구, 음악은 고요한 명상곡을 배경으로 하면 좋다.

(4) 진행

- ① 16절지를 6쪽으로 접고 다시 12쪽으로 접는다. 자신이 아는 자기에 대하여 서술한다.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들인 성격이나, 습관, 태도, 능력에서의 특징을 한 쪽에 한 가지씩 적는다. 이때 가정, 학교, 이웃에서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적는다.
- ② 적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나는" 이라는 주어를 써서 시작한다. "이다, 한다, 하다, 있다" 로 끝나는 문장으로 10개 서술한다. (ex. 나는 ----하다.)
- ③ 한 사람씩 발표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전원이 발표한다.
- ④ 이때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적지 못한 것,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은 따로 메모한다.
- ⑤ 발표하면서 자신을 향한 느낌(기분)은 어떠한지,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느낌은 어떤지를 서로 나눈다.
- ⑥ 참가자들의 발표한 내용에서 나 자신과 다른 점, 공통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얻었고, 꾸준히 추구하는 것을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떤 시도를 해 보고 싶은지 생각할 시간을 준다. 음 정리하고 발표한다.
- ⑦ 다음은 조용히 자신의 10개 쪽지에 적힌 것을 감상하면서 자기 속의 자신과 대화한다. 하나 하나의 항목을 놓고 진정으로 이점은 그대로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 좀 바꾸어 보고 싶은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생각할 시간을 준다. 음 서로 발표한다.
- ⑧ 다음 바꾸고 싶은 것이나 버리고 싶은 항목을 뽑아서 오른손에 선택한다. "정말 그 동안 나를 무겁게 했고, 나에게 지장을 주었던 것들, 이제는 멀리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없애 버리도록 하는 작업을 합시다." "버리면 없어집니다. 자 버립시다, 멀리 날리든지, 찢어 버리든지, 꾸기어 버리든지, 마음대로 멀리 멀리 버리십시오."-잠깐 침묵 유지- "그리고 설마 그렇게 될까? 라는 의문이 있는 사람은 다시 크레파스 쪽지에 써서 준비합시다."
- ⑨ "준비된 사람은 없어진다, 없어진다, 정말 그렇게 된다는 생각으로 멀리 세차게 던집니다." 라고 다시 강조한다.
- ⑩ 조용히 눈감고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1분 정도)
- ⑪ 기분이 어떠한지를 발표하게 한다.

(5) 유의 사항

- 조용하고 격리된 곳. 진행은 차분하게 물입이 잘 되도록 한다. 대단위는 가급적으로 피한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개방할 것. 진행자도 자신을 투입하도록 한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숨겨진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참다운 나 자신을 찾게 되어 자유로워진다.
- ② 겸허한 태도 변화와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된다.
- ③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아를 재발견하게 된다.
- ④ 자기와 타인이 각각 독자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고 서로 배우고 싶어진다.

⑤ 개인과 집단 속에서 서로 필요한 존재로 수용되고 안정되어 진다.

(7) 응용

◎ 자료 제시

【 나는 누구인가 】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풀밭에 색색이 꽃들이 모여 있듯이 나 여기 친구들과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형제, 선생님, 친구 나에게에는 햇빛과 공기처럼 중요한 분들입니다.
 내가 아플 때 밤새우시며 애태우시던 어머니와, 내가 답답하고 막막하여 어쩔 줄 몰라할 때 내
 두 손을 꼭 잡아주시던 선생님, 너무 속상하여 땅 속으로 영원히 숨고 싶을 때 같이 울어주던 친
 구,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고개 끄덕이며 등 두드려 주시던 선생님, 이렇게 부모님, 선생
 님이 주시는 햇빛, 물, 공기로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제법 야무진 꿈, 씩씩한 꿈을 꾸입니다.
 친구들, 다정한 친구,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 예쁜 친구 등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혼자만 그 친구를 갖고 싶어서 속상해 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울먹이던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보다 특별해 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씩씩하고 의젓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갖가지 마음이 나를 혼란하게 합니다. 이러한 나는 과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잠시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4. 신뢰의 산책

(1) 개 관

- 인간은 독자성을 지닌 존재인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려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아 실현의 의지를 실
 천하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형성이 으뜸이다. 이는 자신이 타인을 믿고 개방하고 솔직히 말할
 때 자기도 신뢰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호신뢰의 형성이란 것은 인간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장님안내하기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신뢰성 구축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덕 목

- 공동체의식, 신뢰성, 봉사정신, 자기개방, 타인이해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중집단, 대집단
- ② 소요시간 : 1시간 이상

③ 장소 : 실내 또는 실외(적당히 넓은 장소)

④ 장애물이 될 만한 물건들

(4) 진 행

- ① 2명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장님이 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장님을 붙잡고 길을 안내한다.
- ② 장님은 안내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하며 눈을 뜨거나 소리를 낼 수 없다.
- ③ 안내자는 장님이 다른 패와 부딪히지 않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역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 ④ 제한시간이 끝나면 서로 바꾸어 해본다.
- ⑤ 끝나고 난 뒤 장님이 되었을 때와 안내자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5) 유의 사항

- 규칙이 잘 지켜져 가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지 참관한다. 즉, 안내자와 장님의 역할이 잘 진행되
 고 있는지에 유의하여 진행할 것.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이 놀이는 동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데 좋은 놀이이다.
- ② 특히 장님이 되었을 때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눈을 뜨거나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동료에 대
 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장님은 안심하고 자신을 동료에게 맡기며 안내자 역시도 동료가 안전
 하게 길을 가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 ③ 눈을 가린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하냐고 물어보면 암담하다고 하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이 놀이는 바로 진정한 동지애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
- ④ 상대의 배려(친절) 봉사를 체험하여 신뢰를 키우게 된다.
- ⑤ 안내자(지도자)의 역할을 경험하고 그것의 어려움을 체험한다.

(7) 응용

◎ 손발 씻어 주기

- ① 두 사람씩 짝이 되어 '시선 나누기, 마음 나누기'를 하고 난 후 두 차례로 진행자가 안내한다.
- ② 진행내용은 앞과 같다.
- ③ 여름의 야외 연수 개울가에서 가능하다.
- ④ 진지하게 대야에 물을 떠서 정성껏 차분하게 씻어준다. 느끼면서 입한다.
- ⑤ 체험하고 난 느낌을 발표한다.
- ⑥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사람이 더 큰 감명을 받는다.

5. 원 안에 들어가기

(1) 개 관

- 장시간의 실내 활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신체동작 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우연 선체험 학습이며, 한편으로 개인의 집단에서의 소속과 이탈에 대한 경험활동이다. 집단은 나 자신의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는다.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더욱이나 소속 집단에서의 이탈은 큰 결심과 갈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 덕 목

- 자신감, 자율성, 협동성, 공동체의식

(3) 준비 사항

- ① 집단운영 :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
- ② 소요시간 : 1시간 이상
- ③ 장소 : 실내, 실외
- ④ 준비물 : 간편한 복장

(4) 진 행

- ① 8-10명의 조로 나누고, 두 사람을 선택 또는 지원하도록 하여 고양이와 쥐로 별칭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쥐와 고양이를 원의 안과 밖에 둔 다음 쥐잡기에 들어간다.
- ② 쥐는 원을 넘나들면서 고양이의 돌격을 피하되 모든 사람은 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단합한다. 쥐가 피하다가 잡히거나 지쳐서 주저앉으면 그 자리의 사람이 나와서 고양이가 되고, 먼저 고양이는 이번에는 쥐가 되어 술래잡기를 계속한다. 전원이 번갈아 쥐와 고양이의 역할을 모두 경험한다.
- ③ 두 사람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에 진행자는 원의 안과 밖 이동이 3-4번 정도 되풀이되었으면 성공한 것으로 정리하여 다음 차례의 사람을 쥐와 고양이로 교대한다. 술래를 합창한 다음 경험 중에 느꼈던 것을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눈다. 쥐가 되어 원 안에 뛰어 들어갔을 때, 고양이를 방어할 때, 방어 당할 때, 고양이와 쥐를 막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5) 유의 사항

- 신체 부자유자, 허약자 등은 참관한다. 실시 도중 포기하지 않는다. 시간을 재촉하거나 측정하지 않는다. 공격과 회피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책려한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조를 구성한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대집단 진행의 경우에는 각 소집단의 인상적인 소감을 모아서 2-3개의 내용을 소집단별로 전체에 소개한다.
- ②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높인다.
- ③ 소속감과 집단의식을 체험한다.
- ④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깊은 성취를 가능하게 함을 체험한다.
- ⑤ 협동의 위력을 새삼 발견한다.
- ⑥ 신체의 조건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즉 키가 큰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
- ⑦ 막는 사람의 신장이 작으면 원 둘레의 위로 쉽고 가볍게 넘어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되며, 자기가 성취하려는 데에 따르는 장애물을 지혜나 피를 내어서 잘 극복하려고만 한다면 지름길이 반드시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 응 용

- ① 1조를 8-10명으로 활동할 경우에 한 명만이 술래가 되어 '원 안에 들어가기' 와 '원 안에서 나오기' 등을 모두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 ② 이 경험에서 어떤 집단에서 소속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소속되었던 집단에서 이탈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이 어려움은 집단에 대한 의리를 배반하는 괴로움이나, 배신 행위에서의 보복의 두려움 등의 극복을 각오해야 하는 용단 등이 요구됨을 터득할 수 있다.

6.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1) 개 관

- 모든 삶은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만큼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나 한사람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집, 우리 회사만 잘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유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생산적 에너지를 최고로 키워 모두 함께 해냈을 때, 총체적 에너지의 생산성은 아마 높아질 것이다.

(2) 덕 목

- 협동성, 창의성, 민주시민의식

(3) 준비 사항

- ① 집단운영 : 중그룹, 대그룹
- ② 소요시간 : 1시간 이상
- ③ 장소 : 넓은 강당
- ④ 준비물 : 크레파스, 기본 산출표, 집계표, 청·백 카드를 각각 조별로 10매씩 준비한다.

(4) 진행

- 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한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택이 필요할 때는 항상 갈등이 따른다. 어느 한 부분의 완전한 포기가 바로 선택이기 때문이다. 현재라는 시간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하므로 서로 협동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생각해야만 공동 미래사회가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자원고갈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무엇에 관심 두고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요지의 설명을 한다.
- ② 전체 집단을 4개의 조로 나눈다. (16명일 때 4명씩, 20명일 때 5명씩)
- ③ 청·백 카드를 의견 통해서 그때그때 결정하는 데 있어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조 이름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총 이익		

- ④ 게임을 총 10회 운영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하고 실제로 들어간다.
- ⑤ 5, 8, 10회에는 각 조의 대표를 뽑아서 공동 합의하게 한다.
- ⑥ 5, 8, 10회의 손익계산서는 각 3, 5, 10배로 계산한다.
- ⑦ 기본 산출표와 집계 표는 칠판에 붙이고 진행한다.
- ⑧ 대표는 매회 바꾸어가면서 정하고 대표는 청·백 카드를 의논해서 갖고 나와 칠판에 붙이고 집계 하여 금액을 써넣는다.
- ⑨ 총 10회의 운영이 끝나면, 서로 합산을 내어 살펴본다.
 - 백색카드를 10회에 걸쳐서 냈을 경우 전체 결산은 어떻게 될까요?
 - 중간 5, 8, 10회 대표끼리 협의한 내용대로 잘 이행되었습니까? 안되었으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대표자의 설득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 주로 어느 사람의 주장이 압도적이었습니까?
- 적게는 가정, 크게는 지구 전체의 이윤을 생각해 봅시다.

(5) 유의 사항

- 실제 운영 전에 연습 운영한다. 그룹간의 의사 결정을 서로 알지 못하도록 한다. 대표자가 어떻게 집단에 전달, 의사결정을 돕는가를 자세히 관찰해 본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 ② 완전한 승리는 전체의 신뢰로운 사회건설, 신뢰로운 인간 관계 형성에 있다.
- ③ 약속 사회는 공동 발전의 기반이 된다.
- ④ 공동체의식, 국가의식, 지구촌의식을 경험한다.
- ⑤ 개인 이기심이 집단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체험한다.
- ⑥ 진정한 우리라는 뜻은 소그룹의 우리가 아니라 전체의, 모두의 우리라는 뜻을 알게 된다.

7. 역할극

(1) 개 관

-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심리적인 좌절이나 소외감을 자주 갖게 된다. 특히 다른 시대의 사람들보다 현대의 사람들은 급격한 산업 사회의 발달에서 오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의 팽배와 세대간의 갈등은 물론 각종 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독감, 소외감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역할극에서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 상황을 집단 참가자들이 함께 즉흥적으로 연기해 보는 법이다. 갈등 문제를 좀 더 객관화시키고 보다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언어, 행동을 보고 타인의 것을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집단의 특성과 관계되는 주제로 연극을 연출함으로써 문제의 관점이 환기되고 해소되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연극은 주제의 설정이나 내용의 구성은 물론 각 배역들이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역동적 과정을 경험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완성 작업이다. 따라서 곧 체감이 증진되는 경험을 갖게 된다.

(2) 덕 목

- 자율성, 주체성, 사회성, 창조성, 의사결정 능력 향상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대집단, 소집단
- ② 시간 : 2시간 30분 이상
- ③ 장소 : 실내
- ④ 준비물 : 주변의 물건으로 해서 꾸민다. 참가자 전원이 다 함께 참여한다.

(4) 진행

- ① 전 참가자를 8명 이내의 조로 편성한다.
- ② 진행자는 극을 엮는 순서를 준다.
 - - 주제 선정하기 : 공동의 관심사로
 - - 내용 꾸미기 :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 - 배역 정하기 : 각자 희망대로
 - - 연습하기 : 진지하게, 신속하게
 - - 공연시간 : 5분 이내로
- ③ 주제 선정은 미리 제시하여 주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참가자들이 공동 관심사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다.
- ④ 주제가 뚜렷하게 잘 드러나도록 2개 정도의 장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장면이 여러 번 바뀌면 혼란을 준다.
- ⑤ 내용은 전 구성원의 이야기를 극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서 연결되도록 쓴다.
- ⑥ 배역은 가급적 희망대로 정하고 대사는 내용에 맞도록 즉흥적으로 각자 구상한다.
- ⑦ 발표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서로 연습하면서 협동해서 보완해 주고 수정한다.
- ⑧ 총 준비 시간은 꼭 길어야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집중하고 협력하여 가느냐에 달렸다. (30분간)
- ⑨ 발표는 6개의 조로 30분간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제도 2-3가지로 집약하면 다각도의 대안 접근이 깊게 이루어질 수 있다.
- ⑩ 발표 공연 후는 준비할 때의 이야기와 활동을 마치고 난 후의 자신의 느낌을 대집단에서 각 조원이 몇 명씩 발표한다.(소집단으로 전원이 나눔을 가져도 좋다.)

(5) 기대 효과

- ① 서로의 비슷한 갈등에 공감하고 친근감이 생긴다.
- ②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이 넓어지고 해결에 대한 방안 선택이 명료해진다.
- ③ 참가자간에 상호 작용이 높아 공동체감(응집력)이 커지는 것을 배운다.
- ④ 집단의 성숙, 개인의 발전에 기회가 된다.
- ⑤ 다양한 역할 연습으로 성인들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

(6) 응용

◎ 자료 제시

☞ 주제의 선택 면에서

주제 선정에서 집단의 특정한 문제와 관련시켜 문제 정리와 함께 해결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 단 이 때 유의점은 한두 개의 해결 방법으로 집약하거나 완전한 흑백논리로 결론짓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긍정적 수용이 된다. 예를 들면 친구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부부와 자녀 관계, 영업자와 고객의 관계, 직장의 상하관계 등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 선택을 통하여 문제를 표출하고, 해결방법까지 자발적으로 설정해 보는 것이다. 또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동적 관계 형성 과정을 경험하는 학습이다.

8. 2000년대의 삶

(1) 개 관

- '다가오는 2000년대는 보다 새롭고 보람된 삶을 산다'는 젊은이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다양하고 다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불확실한 문제의 연속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크게 양분화 되었던 사상이 퇴조하고 겹으로는 하나의 사상인 인류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갈등은 날로 심각하게 뒤엉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산업 사회의 급격한 성장으로 경제 우선 주의가 되어 모든 사물, 인간들의 생활태도까지 경제발전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인간성 상실, 자아 상실, 문화 부재, 윤리의식 부재로 전통적인 가치조차도 수단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좀 더 의미롭고 광범위한 공동 성숙을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2000년대에 살아가야 할 세대들은 갈등, 혼란의 주변인으로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직접 주도해 나갈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 그들은 어린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이었기에 기성인들 보다 훨씬 열린 마음, 참신한 감각과 사고력을 지녔다고 본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도 넓히는 동시에 기발한 창의성도

무한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성인들이 새로운 2000년대가 다음 세대들의 것임을 인식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의 미래를 개척하고 각자 2000년대의 삶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조명해 보고 나아가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의 새로운 삶을 멋지고 새로운 2000년대의 삶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하도록 한다.

(2) 덕 목

- 주제성, 사회성, 공동체 의사, 인생관 확립

(3) 준비 사항

- ① 집단운영 :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
- ② 소요시간 : 2시간 이상
- ③ 장소 : 실내
- ④ 준비물 : 조각종이(1인당 6매), 전지 (6-8인 1조 당 1매), 크레파스, 필기도구

(4) 진행

- ① 10cm 정방형 정도의 조각종이를 각각 6매씩 준비한다.
- ② 각각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3분간 생각하게 한 후에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3매에 각각 쓴다.
- ③ 다음에는 각자 원하지 않는 2000년대의 변화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 후에 그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조각종이 3매에 각각 쓰도록 한다.
- ④ 원하는 미래의 변화 내용과 원하지는 않더라도 변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들들을 모아서 섞은 다음 조별(6-8명 1조)로 나눈다.
- ⑤ 모든 조각종이의 내용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여, 10여가지로 내용을 압축하고 화보를 만들도록 한다.
- ⑥ 화보 제작 시에는 그림, 또는 문장으로 전지에 표현하되 멋진 제목도 표현하도록 한다.
- ⑦ 제작된 화보를 조별로 발표할 때 간단한 동요 형상을 놀이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
- ⑧ 조별 발표가 끝나면 활동 과정에서의 느낌을 나눈다.

(5) 유의 사항

- 허황된 미래사를 피하도록 한다. 조별 작업시에는 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미래 변화의 내용이 실려 있는 신문 기사 또는 잡지에서 스크랩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가 있으면 진행이 용이하다. 과거의 변화 속도와 다양성에 비해 앞으로의 2000년대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2000년대의 삶에 대해서 자기와 타인의 여러 가지 상상을 창출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 ② 사회 변천에 대처하기 위한, 개성에 맞는 능력 신장과 책임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 ③ 집단 사고의 종합 정리 기술을 터득하고 개인 의견의 소중함과 영향력을 발견하게 된다.
- ④ 개인과 집단의 성숙은 자유로운 상상력의 창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 ⑤ 비록 추상적인 '2000년대의 삶'의 상상활동이지만 이의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7) 응용

- 소집단(12명)일 경우에는 '2000년대의 나의 역할' 또는 '내가 바라는 2000년대의 세상' '2000년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등의 주제로 16절지에 간단히 적분을 쓰게 한 후 발표하고 느낌을 나눈다.

9. 내가 나에게

(1) 개 관

- 집단 활동의 마지막 절정 작업으로서 자기 객관화, 타인 수용과 공동체의 일체감 등의 체험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며 각자 자신을 정리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들이 지닌 의도적 활동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각각 개인의 경험과 정서적으로 성숙된 느낌을 나눔으로써 개인은 성장체험을 하고 집단은 역동적인 응집력을 갖게 된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볼 때 자신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협동하며 책임을 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자기다짐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생애를 되돌아봄과 동시에 앞을 내다보는 자기성찰의 순간이 될 것이다.

나-너-우리-우주, 자연, 세상에서의 조화로운 자기 삶의 확립이 확산된다. 자신의 신뢰로 자기실현의 길에서 공동체의 헌신과 봉사로 집단 속에 소속되어 가는 풍요한 삶의 학습이다.

(2) 덕 목

- 주제성, 자율성, 사회성, 자아확립

(3) 준비 사항

- ① 집단운영 : 소집단
- ②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이상
- ③ 장소 : 실내

- ④ 준비물 : 필기도구, 16절지 용지 각각 1매, 명상용 테이프, 녹음기

(4) 진행

- ① 용지를 나눈 다음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써 보도록 한다.
- ② 소망의 기도를 글로 쓴다는 생각으로 형식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써내려 가도록 한다.
- ③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망사항을 기도하는 것처럼 쓸 수 있고, 자라온 과거를 회상해서 자신에게 주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장차 다가올 미래의 설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내용이 되었던 신중하게 생각하고 써 보도록 한다.
- ④ 시간은 참가자들이 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한다.
- ⑤ 다 쓴 다음 모두 섞어 모은다. 무작위로 뽑아서 돌아가며 낭독한다.
- ⑥ 끝으로 느낌 발표에 들어간다.

(5) 유의 사항

-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쓰기 전에 2-3분간 명상의 시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현 불가능한 사연이라도 신에게 상소할 수 있게 한다.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자라온 생애의 회고와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② 남의 장점, 성격 따뜻한 인간애와 접할 수 있다.
- ③ 여러 사람의 다양한 내면 세계에 접할 수 있다.
- ④ 자신의 생애가 값있다는 것임을 알게 된다.

10. 소감문 쓰기

(1) 개 관

-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종합 정리하는 종결과정이다. 여러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마음 깊이 되새겨 간직하는 기회가 된다.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여 재발견하고 자아확립과 행복한 삶을 위한 새 출발점이 된다.

(2) 덕 목

- 주체성, 사회성, 자아확립

(3) 준비 사항

- ① 집단 :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
- ② 장소 : 실내, 실외도 됨
- ③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④ 준비물 : 흰 종이, 필기도구

(4) 진행

- ① 실내에 모두 둘러앉게 한다.
- ② 인간관계 프로그램 첫 프로그램부터 지금까지의 일정을 상기시킨다.
 - -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나, 감동을 받는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었나?
 - - 자신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어떻게 다르고 특이한가?
 - -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떠한 변화인가?
 - -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가?
- ③ 위의 사항을 깊이 생각하도록 한 뒤에 소감문을 쓴다.
- ④ 약 20-30분 기다림
- ⑤ 다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원형으로 둘러앉는다.
- ⑥ 소감문을 발표한다.

(5) 유의 사항

- 조용히 생각하고 종합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소감문을 쓰도록 권하는 것은 좋으나,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대로 수용해 준다. 소감문을 쓰는 형식은 자유롭게 한다. 쓰는 시간을 알맞게 조정한다. 각자 혼자서 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 좋다.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쓰도록 암시한다. 소감문 자료를 거두고자 할 때는 참가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집한다. 인간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건의나 평가적인 내용도 쓰게 한다. 돕는 이도 소감문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 소감문은 빈 종이에 써도 좋다.

(6) 정리 및 기대효과

- ① 자기의 경험을 정리하는 능력이 배양된다.
- ② 여러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었던 것을 마음 속 깊이 되새겨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기회가 된다.
- ③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여 재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나와 남이 어떻게 다르며,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이해한다.
- ④ 프로그램에서의 학습이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임을 재인식한다.
- ⑤ 다른 참가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 ⑥ 참된 만남의 이해는 감정의 공감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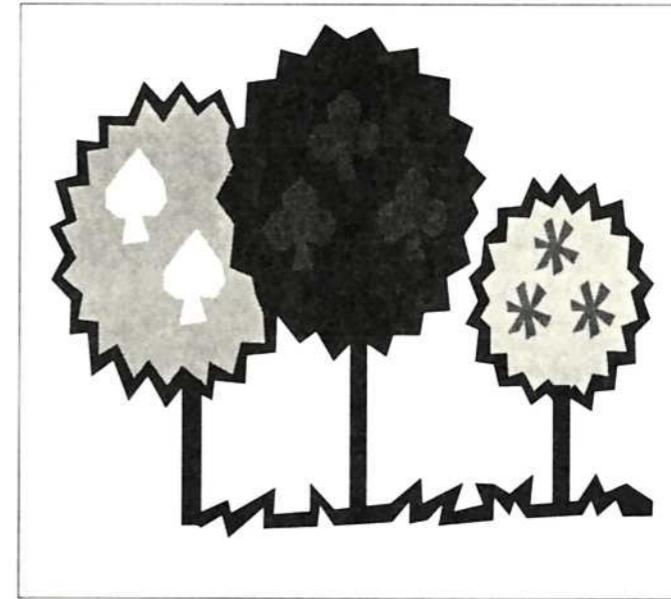
- ⑦ 인간의 생활과정은 자기 성숙의 길임을 경험한다.
- ⑧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 ⑨ 참가자들의 성취의욕을 발견하게 된다.
- ⑩ 자유로운 장에서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서로 자신들을 격려하고 격려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 일정표 ◎

시간/날짜	1일	시간/날짜	2일	시간/날짜	3일
9:30-10:00	야영장으로 출발	7:00- 7:30	일어납시다!	7:00- 7:30	일어납시다!
10:00-11:30	야영장에 도착	7:30- 8:00	아침체조 및 산책	7:30- 8:00	아침체조 및 산책
11:30-12:00	방배정 및 짐정리	8:00- 9:00	아침식사	8:00- 9:00	아침식사
12:00-14:00	점심을 맛있게	9:00-10:30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9:00-10:00	내가 나에게
14:00-15:00	시작의 시간 (캠프의 의의)	10:30-12:00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10:00-11:30	소감문 쓰기 및 발표
15:00-16:30	별칭 짓기	12:00-13:30	점심식사	11:30-12:00	자유시간
16:30-18:30	나는 누구인가	13:30-16:00	역할극	12:00-13:30	점심식사
18:30-20:00	저녁을!	16:00-18:00	자유시간	13:30-14:30	짐정리 및 자유시간
20:00-21:00	신뢰의 산책	18:00-19:30	저녁시간	14:30	출발!
21:00-22:00	원안에 들어가기	19:30-21:00	2000년대의 삶		
22:00-	꿈나라로!	21:00-22:30	캠프파이어 & 꿈나라로		

제 4 장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친해지기
 나의 발견
 인권을 생각하자...
 공동체가 되자
 나의 생각, 나의 편견
 그 밖에...
 자료제시

I. 친해지기

1. 나의 소개

(1) 개 관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봄으로써 자아개념을 더욱 발달시키고 서로 다른 생의 목표와 생활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간의 인간적인 이해가 깊어진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제한 없음
- ② 시간 : 40분
- ③ 준비물 : '나의 소개' 이름표, 필기도구, 옷핀

(3) 진 행

- ① 참가자들에게 '나의 소개' 이름표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소개한다는 기분으로 써넣도록 한다.
- ② 다 적었으면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 ③ 참가자들에게 옷핀을 나누어주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이름표를 달고 있게 한다.
- ④ 시간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서로의 이름표를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다.

☞ 복사해서 쓰세요.

지금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기를 원하는 것 ① ② ③	우리 그룹내에서 서로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 ① ② ③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① ② ③
전에는 잘했는데 이젠 잘 못하는 것 ① ② ③	이름: 내가 잘 하는 것 ① ② ③	전에는 잘 못했는데 이젠 잘 하는 것 ① ② ③
	하기 싫지만 꼭 해야하는 것 ① ② ③	

2. 소개합니다

(1) 개 관

-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참가자 각자가 자신의 장점이나 특징을 이름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서로를 보다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2) 준비 사항

없음

(3) 진 행

- ① 참가자 전원(15명 이하가 좋음) 둥글게 둘러앉는다.
- ② 한 사람씩 일어서서 자신의 장점이나 특징을 이름과 함께 소개한다.
 - - 예 : 노래를 잘하는 ○○○입니다.
- ③ 첫 번째 사람이 소개를 마치면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소개한다.
 - 앞사람이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뒤에 붙인다.
 - - 예 : 노래를 잘하는 ○○○옆에 앉은 물구나무서기가 특기인 ×××입니다.
- ④ 세 번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 예 : 노래를 잘하는 ○○○옆에 앉은 물구나무서기가 특기인 ×××옆에 앉은 아랑드롱 뺨치게 잘생긴 △△△입니다.
- ⑤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사람까지 소개한다. 즉, 참가자가 모두 15명이라면 마지막 사람은 앞에 14명을 소개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자신을 소개하게 된다.
- ⑥ 끝났으면 순서를 거꾸로 하여 다시 한번 한다.

(4) 유의 사항

- ① 지도자 자신이 먼저 소개를 시작하는 것이 분위기 조성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 ② 장점이나 특징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나 별명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 만나보고 싶은 사람

(1) 개 관

- 상대방의 가치관과 관련된 많은 경험이나 사실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봄으로써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한다.

(2) 준비 사항

- 대화를 위한 예시문(1인당 1매), 메모지, 필기도구

(3) 진 행

- ① 참가자들이 둥글게 앉은 후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과 짝을 지어 둘씩 앉도록 다시 자리를 정한다.
- ② 대화를 위한 예시문(자료부분 참조)을 일인당 한 부씩 나누어준다.
- ③ 둘씩 짝이 되어 서로 상대방을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대화 예시문의 내용에서 참조(!)하여 약 10분간 대화를 나눈다. 이때 대화 예시문의 내용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외의 내용도 서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대답한다.
- ④ 서로 충분히 대화가 되어 상대방을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면 짝을 바꿔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다.
- 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어봄으로써, 상대방의 가치관을 통해 상대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갖도록 한다.
- ⑥ 대화를 마친 후 둥글게 앉아서 대화를 나눈 소감을 이야기한다.

(4) 유의 사항

- ① 대화를 위한 질문의 예시문은 말문을 열기 위해 단지 하나의 예시적 형태로 주어진 것이므로 그 외의 사항들은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첨가, 변형하여 응용해도 좋다.
- ② 둘씩 짝을 지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평소에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사람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듣는 입장은 새로운 내용이지만 말을 하는 쪽의 입장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인 만큼 싫증나기 쉽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재치 있게 변형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4. 서명 받기

(1) 개 관

- 상대방의 환경을 이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성원간의 친근감을 배양하고 인간관계에서 흔히 있는 긴장감을 해소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약 20명 정도
- ② 시간 : 40분
- ③ 준비물 : '서명 받기' 설문지(자료 148p 참조), 필기도구

(3) 진행

- ① 참가자들에게 '서명 받기' 설문지를 일인당 한 부씩 나누어준다.
- ② 정해진 시간(보통 20분)안에 각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명을 받도록 이야기한다.
- ③ 지도자는 이 게임에서의 주의사항을 이야기한다.
- ④ 서명해주는 사람은 단순히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연을 간략하게 이야기해주도록 한다.
- ⑤ 게임을 마친 후 각 참가자들은 질문 받았을 때의 느낌이나 인상깊었던 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소감을 나눈다.

(4)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질문 받은 사항만 서명해주도록 지시한다. 즉 서명용지를 주고 해당사항은 모두 서명해 달라고 하는 식의 방법은 금지한다.
- ② 한 질문에 여러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인원이 적을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서명하는 것도 허용한다.
- ③ 구성원이 모두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활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④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이 끝나면 서명 받으러 다니는 것도 마치도록 하는 것도 좋다.
- ⑤ 많이 서명 받은 사람에게 시상하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얼굴 그리기

(1) 개 관

- 딱딱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활동으로 처음 본 사이라면 어색함을 풀 수 있고 서로 잘 아는 사이라도 서로를 주의 깊게 응시하는 속에서 상대방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제한 없음(짝수가 좋음)
- ② 시간 : 약 30-40분
- ③ 장소 : 관계없음
- ④ 대형 : 두명씩 짝을 짓는다.
- ⑤ 준비물 : 얼굴을 그릴 종이(자료 149p 참조), 필기도구

(3) 진행

- ① 두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한다.

- ② 주어진 종이에 상대의 얼굴을 그린다.
- ③ 그림을 그리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궁금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한다.
- ④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린 사람의 특징을 발표해 본다.

(4) 유의 사항

- 그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특징만을 잡아 그릴 수 있게 미리 알려준다.

6. 나의 감자

(1) 개 관

- '나'만이 갖는 독특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의미를 부여한 이후의 감자가 다른 여러 감자와는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2) 준비 사항

- ① 인원 : 약 20-30명
- ② 시간 : 약 40분
- ③ 준비물 : 인원수만큼의 감자

(3) 준비 사항

- ① 참여자의 수만큼 감자를 준비하고 각자 한 개씩 감자를 갖는다.
- ② 자신이 고른 감자를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고 관찰해보자. 감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감자를 이용해 자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③ 감자를 잘 관찰한 후 감자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 - 예 : 이 감자는 ○○○ 감자인데 구멍이 좀 많고 울퉁불퉁하지만 모아 놓으면 그런 대로 쓸모 있는 놈이라고..
- ④ 정해진 시간 내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한다.
- ⑤ 소개를 마치면 감자를 제자리에 모으고 잘 섞어 놓는다.
- ⑥ 감자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본다
- ⑦ 얘기가 정리되면 모아둔 감자들 중에서 자기 감자를 찾아본다. 자기 감자를 못 찾거나 불확실한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자기 감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감자를 가져야 한다.
- ⑧ 자기 감자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 해 본다. 또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은 왜 못 찾았는지 이야기해 본다.